

# “고요한 품모엔 자연스러운 기품이”

### 뉴욕타임스, 장문의 기사로 윤여정의 삶과 연기 소개 오스카 후보 두고 “미나리, 많은 선물 줬지만 부담 커”



“윤여정은 이혼녀야. TV에 나와선 안 돼” 그런 사람들이 그렸어요. 근데 지금 저를 아주 좋아해 주세요. 이상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영화 ‘미나리’에서 영동하고도 인정한 할머니(순자) 역할로 열연해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여우조연상 후보에 지명된 윤여정(사진)이 3일자(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말이다.

1970년대에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결혼과 함께 미국 플로리다로 이주, 10여 년을 살고 이혼한 뒤 돌아와 한국에서 다시 배우로 활동하며 힘들고 외로웠던 시절을 그는 NYT와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작은 역할만 들어와서 괴로워했

고 사람들도 대부분 나를 싫어했어요.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갈까 했는데 이렇게 살아남았고, 연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서울의 자택에서 NYT 기자와 화상으로 인터뷰한 윤여정은 “일흔셋의 아시아 여성이 오스카 후보에 오를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면서 영화 ‘미나리’가 자신에게 많은 선물을 줬지만 부담도 크다고 했다.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제 나를 추구선수나 올림픽 국가대표처럼 생각하는데 부담스럽기도 해요.” 미나리를 쓰고 연출한 리 아이작 정(한국명 정이삭) 감독과의 인연도 소개했다.

윤여정의 절친한 친구인 이인아 프로듀서가 부산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정 감독을 소개했는데, 정 감독은 윤여정의 데뷔작인 김기영 감독의 ‘화녀’(1971년)를 감명 깊게 봤다고 했다. 윤여정은 미국에서 나오자 정

감독이 자신의 초기 출연작들까지 꿰고 있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정 감독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고 했다.

윤여정은 미나리 촬영 당시 손자 데이비드로 출연한 앨런 김에 얽힌 일화도 소개했다.

앨런 김이 연기 경험이 거의 없어 자신과 함께 등장하는 촬영분에서 인내심을 시험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앨런이 대사를 모조리 암기한 것을 보고 그런 걱정을 털어냈다고. 연기에 임하는 태도에서는 어린 앨런으로부터 자신의 초년병 시절을 보기도 했다고 한다.

“저는 연기를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고, 영화를 공부하지도 않았잖아요. 열등감이 있었죠. 그래서 대사를 받으면 아주 열심히 연습했어요.”

NYT는 인터뷰에 임한 윤여정의 모습에 대해 “생각에 잠긴 표정에 상냥한 미소와 쾌활한 웃음이 터져나왔고, 고요한 품모엔 자연스러운 기품이 있었다”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는 단호했다”고 평했다.

제93회 오스카 시상식은 오는 25일 열린다.

# 박수홍, 친형에 법적 대응 나선다

### “원만한 해결 의지 없다 판단” ‘미운우리새끼’ 출연도 중단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힌 개그맨 박수홍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선다.

지난 3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더는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5일 정식 고소 절차를 밟아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해당 문제가 알려지자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친형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 언론사를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형 측은 그동안 모든 회계 관리를 해왔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회계 처리에 대한 소명 요청을 번번이 묵살하고 아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일 예정됐던 만남도 친형 측에서 갑자기 ‘말이 아프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박수홍 측은 30년 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친형 부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횡령했으며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정황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에는 그의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댓글이 게재됐다. 이에 박수홍은 “친형 측이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한 게 사실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랜 기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수홍과 그의 어머니는 SBS TV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 출연을 잠시 중단한다.

‘미운우리새끼’ 측은 “박수홍이 어머니와 함께 휴식기를 갖고 싶다는 의견을 제작진에게 전달했다”며 “제작진은 그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수홍과 어머니는 시청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제작진에게도 먼저 양해를 구했다”며 “프로그램을 아껴주시는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아름다운 제주 속 잔혹하고 처연한 이야기”

### 영화 ‘낙원의 밤’ 제작보고회 넷플릭스서 오는 9일 공개

‘신세계’로 한국형 누아르의 새 지평을 연 박훈정 감독의 신작 ‘낙원의 밤’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지난해 베네치아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받았던 ‘낙원의 밤’은 조직의 타깃이 된 한 남자와 삶의 끝에서 있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누아르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던 이들을 잃은 범죄 조직의 에이스 태구(엄태구)가 배후 조직인 북성파의 마 회장에게 복수한 뒤 밀항하기 전 제주도로 은신한다. 그곳에서 유일한 혈육이자 무기상인 삼촌과 사는 재연(전여빈)을 만나고, 북성파의 이인자인 마 이사(차승원)가 태구를 쫓아 제주로 향한다.

박훈정 감독과 배우들이 촬영을 마치고 1년 만에 다시 제주를 찾았다. 지난 2일 제주에서 생중계된 온라인 제작보고회에서 주연 배우 엄태구



지난 2일 제주도에서 진행된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배우들. 왼쪽부터 엄태구, 전여빈, 차승원. 연합뉴스

는 “대본을 봤을 때 주인공 이름이 태구로 되어 있어서 신기했고, ‘날 생각하고 쓰셨나?’ 해서 영광이었다”며 “태구가 아니어도 무조건 했겠지만, 신기해서 감독에게 물었다”고 영화와의 첫 만남을 감격스럽게 전했다.

박 감독은 “아니야”라고 즉답해 웃음을 선사했다.

전여빈은 재연 역에 대해 “세상에서 잃을 게 없어 두려움도 없다. 무

심하면서도 당당하고, 누군가에게 어필하려 하지 않고 존재로서 있는 사람”이라며 “누아르는 주로 남성이 이끌지만, 재연은 이야기를 함께 이끌어나가”며 애정을 표했다.

마 이사를 연기한 차승원은 “이런 캐릭터(악역)의 일반적인 속성을 벗어나 삶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감독에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영화는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잔혹한 사건과 처연한 인물들의 이야기다.

박 감독은 영화의 제목에 대해 “낙원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미지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이 아이러니하게 대비되고,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목을 지으면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가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다”며 “누아르는 특히 작품의 톤과 분위기가 중요하네. 제주만큼 내가 원하는 느낌을 낼 수 있는 장소를 국내에서는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박 감독은 촬영 전 이미지들을 떠올리며 고민하고 있을 때, 촬영 감독이 보내준 사진 한 장을 보고 “금광을 발견한 느낌”이었다고 했다. 사진은 밝은 달빛 아래, 거친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 사진이었다. 실제 촬영도 해질 녘이나 흐린 날에 주로 진행됐다.

박 감독은 “아름다운 제주 바다와 하늘을 담고 그 안에 핏빛으로 얼룩진 이야기를 펼쳐 놓았다”며 “배경과 스토리의 아이러니함을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밝혔다.

영화는 오는 9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 음원 사이트 ‘톱 100’ 중 16곡이 아이유

### 대중이 믿고 듣는 최강자 확인

아이유(사진)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일간 차트 ‘톱100’에 자신의 노래 16곡을 올리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최신 앨범 수록곡 전곡 상위권 진입, 과거 나온 곡의 통편, 역주행 등이 이루어지며 다시 한번 ‘음원 최강자’ 입지를 확인했다.

지난 3일 멜론이 공개한 전날 일간 차트에 따르면 아이유 정규 5집 타이틀곡 ‘라일락’과 수록곡 ‘셀러브리티’, ‘코인’은 각각 1, 3,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봄 안녕 봄’(8위), ‘플루’(9위), ‘돌림노래’(13위), ‘아이와 나의 바다’(14위) 등 이 앨범에 수록된 10곡 모두 차트 상위권에 자리했다.

콘서트 실황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돼 지난 2일부터 역주행하기 시작한 ‘나 손을 잡아’는 10위까지 순위가 올랐다.

2019년 나온 ‘블루밍’(20위), ‘러브포엠’(68위)을 비롯해 지난해 발표한 ‘에잇’(21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OST ‘마음을 드려요’(55위)가



지 1~2년 전 발매된 노래들도 여전히 차트를 지키고 있다.

같은 날 지니뮤직에서도 아이유의 노래 16곡이 ‘톱 100’ 내에 자리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아이유의 이번 앨범 수록곡은 ‘팬덤’의 출세유기와는 다르게 순위가 산재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대중’이 아이유의 앨범 전체를 들어보고 그중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곡을 골라 듣기 때문”이라며 “대중이 앨범 전곡을 듣는 거의 유일한 가수”라고 평가했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드라마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필도탐상 스페셜 11:50 불면해도 괜찮아 11:55 한국의 인류유산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KBS 아침 뉴스타임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KBS 아침 뉴스타임 2부 9:1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속아도 꿰걸(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달이 뜨는 강(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겐 해피플러스 8:50 밥이 되어라(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쁜 좋은 날 10:45 손현우의 간이역 스페셜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불새 2020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삼나무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투디더쿵 8:00 팅동댕 유치원 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반개맨 9:40 우리집 유치원 12:10 아주 특별한 기행 14:10 EBS 다크프라임 15:15 클래식 e 16:30 팅동댕 유치원 17:00 EBS 뉴스 17:35 포텐북 19:05 드라마 길들이기 19:35 자이언트 펭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내드워고 공몽기획 문화스캐저 13: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4:00 보물섬(재) 14:50 콘텐츠 인테너(재) 15:30 이수 픽 백과 함께 스페셜 16:00 시사건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달이 뜨는 강(재) 13:20 트레킹로드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연중 라이브(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인디의 신기한 여행(재) 15:30 TV 유치원 16: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6:50 다큐멘터리 3일(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시크릿 주주 벌의어신 12:50 뽀뽀뽀 친구친구 13:20 아무튼 출근 스페셜 13:55 중계방송 방송시작 보결선거 방송시작 보결선거 후보자 토론회 15:30 어맛에 신다 16:00 기쁜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최중우돌 만국 유랑기 캠핑 인 코리아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통합이행2 너는 내운명(재) 14:00 중계방송 서울시장 보결선거 방송시작 보결선거 15:40 맨 인 블랙박스 16:00 클리프 NOW 제주(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내모세요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다희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맞춤뉴스 12:05 통합이행2 12: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대거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중대의 뉴스쇼 21:35 라디오강연 22:05 백영희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속아도 꿰걸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와이드 웹 플러스(재) 22:10 가요무대 23:00 더 라이브 23: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미스 몬테크리스토 20:30 박원숙의 같이 살시다 3 21:30 달이 뜨는 강 22:10 달이 뜨는 강 22:40 가는 길흥하다 1부 23:15 가는 길흥하다 2부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0 밥이 되어라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안배우면 다행이야 1부 21:55 안배우면 다행이야 2부 22:40 바매줘! 홈즈 스페셜	18:50 생방송 투데이 1부 19:20 생방송 투데이 2부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1부 21:40 생활의 달인 2부 22:20 통상이행2 너는 내운명 1부 23:10 통상이행2 너는 내운명 2부	KCTV 7:00 KCTV 뉴스 7:30 배워볼서 광명중국어 8:30 방송관련초경연대회 수상자 9:00 KCTV 뉴스 9:30 KCTV-한라일보 공동기획 12:30 KCTV 시청자세상 13:10 KCTV-한라일보 공동기획 14:00 취미로 먹고 산다 15:20 마음의 고향 서울정려 17:00 KCTV 뉴스 20:00 KCTV-한라일보 공동기획 21:00 KCTV 종합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5일
	36년 과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밝은 내일을 꿈꾸자. 48년 문서 관련된 일은 손실이 예상되니 업무처리엔 신중을 기하라. 60년 사무라면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72년 미혼자는 중매가 생기고 기혼자는 집안일에 번주. 자녀에게 신경을 쓴다. 84년 변동보다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추진하는게 좋다.
	37년 사사로운 감정이나 오해로 인쟁하니 주의. 49년 진퇴를 놓고 힘들어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극복하라. 61년 내가 도와준 만큼 실속은 적다. 무리는 금물이고 욕심을 내지 말라. 73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 84년 변동하는 것보다는 이성으로 고집한다. 85년 이성교제가 진행되나 또 다른 이성으로 고민한다.
	38년 사색에서 한 말이 와전되니 언행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50년 과다한 기대나 행동은 금물. 시기자가 생긴다. 62년 숨이 트이는 형국. 분주히 활동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74년 재물유이 강해 망신수가 우려되니 정도를 지켜라. 85년 취직 또는 문서상 기쁜 소식이 있거나 이성교제.
	39년 갈망하는 일이 눈앞으로 다가온다. 51년 변동이 불리하고 실패가 따르니 현상대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 63년 자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다. 자녀 몸매 찰과상 등이 우려. 75년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힘든 일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87년 취직, 직장문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모님 문제로 바쁘다.
	40년 가까이 있는 사람과 다투는다는 배려할 것. 52년 일이 있으면 기쁘고, 없는 자는 돈 문제로 걱정 이 생긴다. 64년 자녀로 인한 근심이 오니 먼저 전화를 할 것. 76년 아이에게 격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임신도 되는 시기이다. 88년 잘난 척하면 선배 또는 상사에게 미움을 받고 오래도록 간다.
	41년 업무에 인정받고 찾는 이가 많아진다. 53년 아랫사람 또는 자녀문제로 상심이 온다.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 65년 도난이나 손재수 조짐. 외출시 문단속 철저. 77년 계산상 착오가 생기거나 머뭇거리다. 손재가 발생하니 기회 포착이 포인트. 89년 돈 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성문제가 발생. 인쟁 주의.
	42년 조급함을 갖지마라. 성급함이 후회를 낳는다. 사업관련 금전 필요. 54년 지식의 보충문제로 고민이 있고, 분주하다. 66년 이성으로 인한 망신수 또는 구설이 우려되니 성회통 조심. 78년 모임이나 친목이 길한 날. 결혼성사, 독자, 이성교제 성신호. 90년 주변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동료에게 인정을 한다.
	43년 책임이 무겁지만 원활히 해결하고 직감력과 노하우로 부러움을 얻기도 한다. 55년 초대를 받거나 내 역할을 때론 상대가 원한다. 67년 모임이나 인맥이 큰 도움이 되니 나서거나 간섭하지 마라. 79년 구매충동 또는 호기심이 강하게 나타난다. 91년 약속이나 모임에 참여하니 응수하는 자중.
	44년 좋은 일속에 흉이 도사리니 밀어붙이는 것은 자중해야. 56년 내 주장은 약하게, 상대의 주장을 많이 경청하는 것이 유익하다. 68년 자존심이나 자만은 집에 두고 일터로 향하라. 80년 마음속 활동을 하거나 의욕이 필요하다. 친목모임 약속이 진행된다. 92년 이별에 상처가 되겠지만 또 다른 이성이 다가온다.
	45년 배짱과 결단력이 필요하지만 독단적 행동은 자제하고 주변과 협동이 좋다. 57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은 금물. 69년 시비거리나 구설수 등이 우려되니 사소한 일에는 유연해져라. 81년 취업, 직장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소식을 접한다. 93년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려니 일이 풀린다.
	46년 명예 또는 이익이 있다. 아랫사람과 대화도 필요하다. 58년 투자는 때도와 매수의 시기를 잘 선택하듯 문서변화 시 신중하라. 70년 활동량이 늘어나고 분주하며 이익은 서서히 나타낸다. 82년 어떤 일을 행하기 전 경계방동은 금물이나 뒷사람에게 공손하라. 94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니 다시 외출하게 된다.
	47년 직장에 문제 발생.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리 정돈은 기본. 59년 돈의 씹음이 커지고 허황된 재물 욕에 갈등을 한다. 71년 강한 호기심으로 변화를 가져보려 하나 지금은 차분히 현상을 충실하라. 83년 이성간에 교제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헤어짐도 온다. 95년 큰소리가 오거나 불리하니 여유가 필요하다.

김홍상 저단(해) 작명학박사  
경기도 평택교수(010-5233-6136)